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선종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지난달 31일 선종했다. 향년 95세.

바티칸 대변인 마테오 브루니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늘 오전 9시34분 바티칸의마터 에클레시아 수도원에서 선종했음을 애도의 마음으로 알린다." 고 밝혔다.

베네딕토 16세는 종신직인 교황직에서 자진 사임한 역대 두 번째 교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4월19일 요한 바오로 2세의 뒤를 이어 제265대 교황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선출 당시 78세였던 나이는 1730년 교황 클레멘스 12세 이후 275년 만에 최고령 교황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의 업무수행 내내 건강에 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는 2013년 2월11일 자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교황직을 사임했다. 종신직인 교황이 생전에 자진해서 사임한 경우는 지난 1415년 이후 처음이었다.

베네딕토 16세 장례식은 지난 5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장례 미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했다. 현직 교황이 전임 교황의 장례미사를 집전한 것은 1802년 당시 비오 7세 교황이 비오 6세 교황 장례미사를 집전한 이래 가톨릭 역사상 두 번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성베드로 광장에 도착해 장례 미사를 주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론에서 "그가 몇 년간 우리에게 베풀어준 지혜, 친절함, 헌신에 감사한다." 며 "주님, 당신께서 베네딕트의 목소리를 영원히 듣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길" 이라고 축원했다.

이날 장례 미사가 진행된 성베드로 광장에는 추기경과 주교 등 성직자 4,000여명과 신도 6만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장례 미사를 위해 1,000명 이상의 보안요원이 배치됐고 교황청 주변 영공이 폐쇄됐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장례 미사가 끝난 후 베네딕토 16세의 관은 지하 묘지 안장을 위해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다시 운구됐다.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에는 역대 교황 91명이 안장돼 있다.



###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요한복음 7:1-24)

'다 같은 살색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살색, 흰색, 검정색 크레파스가 부채꼴을 이루며 나란히 놓여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 같은 살색입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캠페인 광고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 이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그렇지 못하건, 모두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옳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근거해 옳지 못한 일을 당당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 또는 사회의 통념,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님의 겉모습, 학력과 출신 등을 기준 잣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타

이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학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문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기초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기초해 판단하고, 말씀에 기초해 믿고 순종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는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잘 가르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등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사람이나 그의 행동, 또는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현재 가고 있는 성령의 방향에 합하는가, 아니면 거스르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열심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열심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의 봉사과 섬김의 모습,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르다, 잘했다고 하실까?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판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선 바른 판단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생명력 있게 우리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성기 목사-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